

# 이동전화 매출, B2B사업 선방... 2분기 '1조 클럽' 기대

〈영업이익〉

## metro 관심종목 LG유플러스

지난 1분기 영업이익 9790억  
실적우려 해소로 1조 가능성  
MNO 휴대폰 가입자 순증세  
B2B IDC사업매출 증가 예상

LG유플러스가 1분기 아쉬운 실적을 딛고 2분기부터 실적 반등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B2B(기업 간 거래)부분의 선방이 예상되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원을 기록하는 '1조 클럽' 가입이 예상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LG유플러스는 전 거래일 대비 250원(1.81%) 내린 1만3600원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1만3600원에 거래를 마

〈LG유플러스 목표주가〉

증권사	목표주가
대신증권	2만2000원
하나·메리츠증권	2만원
KB·케이프·한국투자증권	1만9000원
유진·다올증권	1만8000원

각사 취합

쳤으나 지난 1월 코스피 지수가 300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난 1월 28일 장중 한 때 1만2600원까지 떨어졌지만 곧바로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최근까지 꾸준하게 1만3000원대를 웃도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가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

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둔화와 영업비용 증가 등의 영향으로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2% 감소한 2612억원을 기록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개선세가 나타나면서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김홍식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LG유플러스 실적 우려가 제거될 것"이라며 "이동전화매출액 성장 폭이 2.6%로 확대가 예상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연결 영업이익이 6% 성장한 2853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MNO 휴대폰 가입자가 최근 순증세로 돌아서 하반기부터는 순증추세로 전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간발의 차로 '1조 클럽'을 달성하지 못했다. LG유플러스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0.5% 늘어난 9790억원(연결기준)을

달성했다.

시장에선 올해 LG유플러스가 실적 개선세를 이어가면서 연간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LG유플러스의 올 영업이익 컨센서스(시장전망 평균치)는 1조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정지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올해 LG유플러스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14조300억원, 1조422억원을 전망한다"며 "시장경쟁 완화로 판매수수료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예상되지만, 단말기 마진 악화로 마케팅비용은 전년 대비 3.2%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정 연구원은 "국내 인터넷데이터센터(IDC) 수요 증가에 따른 고객사 추가 확보와 IDC평촌2센터 완공은 성장 동력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고 평가했다. LG유플러스는 오는 2023년 3분기 연면적 4만450㎡, 축구장 6개 너비의 신규 IDC '평촌2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김준섭 KB증권 연구원은 "B2B사업 중 IDC 사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2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3.4% 성장했다"며 "IDC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 공급가액 상승에 따른 매출액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 연구원은 LG유플러스가 배당성향 강화 등의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강화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LG유플러스는 올 초 배당성향을 기존 '30% 이상'에서 10%포인트 상향한 '40%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2022년 사업연도부터 바뀐 배당정책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 美 AT&T 과세 제각각... 증권사·투자자 혼란

당국 "배당 시가기준 과세" 결정  
뒤늦은 소득세에 가산세도 붙어

미국 통신회사 AT&T 자회사 배당과 관련해 세금을 건지 않은 증권사에 비상이 걸렸다. AT&T 자회사 주식 배당과 관련해 과세당국이 배당 주주의 시가 기준으로 배당소득세를 징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해당 증권사는 뒤늦게 투자자로부터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의제 배당에 해당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가 범법행위를 통해 제출한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지난 4월 국내 AT&T 투자자들은 AT&T 1주당 신설 상장 주식인 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WBD) 0.24주씩을 지급받았다. AT&T가 비상장 미디어 자회사인 워너미디어스핀코를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다.

AT&T는 주주들에게 배당기준일 이후 스펀코 주식을 지급했고, 이어 지난달 8일 스펀코가 디스커버리와 합병하면서 일대일 교환 비율로 WBD 주식을 받았다.

국내 증권사들은 WBD 주식 입고 과정에서 저마다 다른 세금을 적용해 원천징수했다. 국내에 없었던 배당방식이라 증권사들 마다 각각 다른 해석을 내리면서다.

NH·삼성·신한금융투자는 법률 자문을 통해 투자자들이 스펀코 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것을 현물배당으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WBD 시가(24.07달러)의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

수했다.

미래에셋·키움·한국투자증권은 WBD 액면가(0.0056달러)의 15.4%를 세금으로 징수했다. 사실상 0원이다. 대신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아예 세금을 건지 않았다. 스펀코와 디스커버리 합병 직후 권리락으로 AT&T 주가가 22% 급락해 WBD 주식 취득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배당수익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과세당국의 이번 유권해석으로 인해 NH·삼성·신한금융투자를 제외한 국내 증권사들은 WBD 주식의 배당소득세를 뒤늦게 건져야 하는 상황이다. 원천징수세액 납부 기한인 다음 달 10일(5월 10일)이 지났기 때문에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초과한 시점으로부터 매일 0.022% 가산세가 추가로 붙는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DL이앤씨 내달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

전용 59~102㎡ 572세대 구성  
원주의료원 등 편의시설 인접

DL이앤씨가 오는 7월 강원도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 일원에서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을 분양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지하 2층~지상 25층, 6개동, 572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은 ▲59㎡ 137세대 ▲74㎡ 213세대 ▲84㎡ 172세대 ▲102㎡ 50세대로 이뤄진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은 원주 무실동과 반곡동을 가까이 두고 있다. 롯데시네마 남원주점과 원주종합운동장, 원주한지테마파크, 원주국민체육센터, 강원도 원주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을 누릴 수 있다.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투시도. /DL이앤씨

단지 바로 앞에는 오성산과 옥녀봉 등이 있다. 단관공원, 여성가족공원, 무실체육공원 등도 가까이 산책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다.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서원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와 남원중학교, 단군중학교 등이 위치했다.

/김대환 기자 kdh@

##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 312가구 분양

소형주택 262가구, 오피스텔 50실

GS건설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들어서는 '은평자이 더 스타' 49㎡ 262가구, 오피스텔 전용 84㎡ 50실, 근린생활시설 등 312가구를 분양한다. 전용면적별로 소형주택 ▲49㎡A 118가구 ▲49㎡B 96가구 ▲49㎡C 48세대, 오피스텔 ▲84㎡ 47실 ▲84㎡T 2실 ▲84㎡T-1 1실 등이다.

청약일정은 오는 15일 오피스텔 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6일 당첨자 발표 및 17일 정당계약을 진행하고, 소형주택은 20일 청약접수를 받고 21일 당첨자 발표, 23일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소형주택의 경우 판상형 스타일의 3베이(BAY) 구조를 도입해 채광을 높였고, 동일 평수에 적용이 어려웠던 2개의 욕실이 반영됐다. 오피스텔은 4BAY 구조와 2면 개방형 거실을 도입해 개방감을 높였으며, 드레스룸 외에 욕실과 불박이장을 2개씩 구성했다.



'은평자이 더 스타' 투시도. /GS건설

은평자이 더 스타는 도보원에 지하철 6호선 응암역, 새철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증산로, 가좌로 등 차량 이동망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또 인근 3·6호선 연신내역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2024년 부분 개통할 예정이다.

은평자이 더 스타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 없이 분양받을 수 있으며, 일반분양 물량 100%가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 젊은 세대들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

## 분양시장 활기... 경기 5곳 등 11곳서 1933가구 청약

### 분양 캘린더

온라인·현장 방문 동시 운영

이번주에는 아파트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 전망이다. 그동안 미뤄졌던 견본주택 오픈이 쏟아진다.

12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6월 둘째주에는 전국 11곳(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에서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에 나선다. 오픈일은 오는 17일에 집중될 예정이며 경기지역에서만 5곳이 문을 연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사이버 모델하우스와 현장 방문을 동시에 운영할 예정이다.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은 사이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불로 포레스트' 투시도.

/리얼투데이

버 모델하우스로만 관람이 가능하다. 청약물량은 총 1933가구(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포함, 행복주택 제외) 규모다.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3곳에서 진행된다.

대우건설은 오는 16일 충북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 일원에 건립하는 '음성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1순위 청약접수

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동, 전용면적 84~110㎡ 총 875가구다.

DL이앤씨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일원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지축 센텀가든'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13일 오픈한다. 지하 1층~지상 28층, 3개동, 전용면적 84㎡, 총 331가구 규모다.

/김대환 기자 kdh@